

## <수능완성 중요 작품 목록>

영역	작품	작가	중요도	평가원 기출	수 록
현대시	울포의 기억	문정희	★★★		O
	또 다른 고향	윤동주	★★★	13.09	O
	생명의 서·일장	유치환	★★	14.09B	O
현대 소설	환각의 나비	박완서	★★★		X
	고향	현진건	★★★		O
	전갈	오정희	★★		X

-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작품을 선별한 것이며, 중요도 또한 주관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 본 자료는 학력평가 및 역대 수능특강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험생 분들이 이미 접하셨을 평가원 문제는 배제하였습니다.

- 작품 목록에 포함된 작품들은 본 자료 수록 여부와 관계없이 '2022 EBS 수능완성'에서 찾아서 풀어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 '김현중 수능국어' 자료를 2차 가공하여 사용하거나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시 중요도 ★★★ - 율포의 기억 (09년 고2 9월)

(가)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벌거벗고 언 땅에 꽃혀 자라는 / 초록의 겨울보리,  
생명의 어머니도 먼 곳 / 추운 몸으로 왔다

진실도 / 부서지고 불에 타면서 온다  
버려지고 피 흘리면서 온다

겨울 나무들을 보라  
추위의 면도날로 제 몸을 다듬는다  
잎은 떨어져 먼 날의 섭리에 불려가고  
줄기는 이렇듯이 / 충전 부싯돌임을 보라

금 가고 일그러진 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상한 살을 해집고 입 맞출 줄 모르는 이는  
친구가 아니다

생명은 / 추운 몸으로 온다  
열두 대문 다 지나온 추위로  
하얗게 드러놓는 / 함박눈 눈송이로 온다

- 김남조, 「생명」-

(나)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소금기 많은 푸른 물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바다가 뿌리 뽑혀 밀려 나간 후  
꿈틀거리는 ㉠검은 빨발 때문이었다  
빨발에 위험을 무릅쓰고 퍼덕거리는 것들  
숨쉬고 사는 것들의 힘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다  
먹이를 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왜 무릎을 꿇는 것일까  
깊게 허리를 굽혀야만 할까  
생명이 사는 곳은 왜 저토록 쓸쓸한 맨살일까  
일찍이 어머니가 나를 바다에 데려간 것은  
저 무위(無爲)한 해조음을 들려주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물 위에 집을 짓는 새들과  
각혈하듯 노을을 내뿜는 포구를 배경으로  
성자처럼 빨발에 고개를 숙이고  
먹이를 건지는  
슬프고 경건한 손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 문정희, 「율포의 기억」-

(다)

여보게 이웃들아, 산수(山水) 구경 가자꾸나.  
답청(踏靑)은 오늘 하고, 욕기(浴沂)는 내일(來日) 하세.

㉡아침에 채산(採山)하고, 저녁에 조수(釣水)하세.  
갓 발효하여 익은 술을 갈건(葛巾)으로 걸러 놓고,  
㉢꽃나무 가지 꺾어, 썸을 하며 먹으리라.  
화풍(和風)이 잠깐 불어 녹수(綠水)를 건너오니,  
㉣청향(清香)은 잔에 지고, 낙홍(落紅)은 옷에 진다.  
술동이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小童) 아이에게 주가(酒家)에 술을 물어,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메고,  
미음완보(微吟緩步)\*하여 시냇가에 혼자 앉자,  
명사(明沙) 깨끗한 물에 잔 씻어 부어 들고,  
청류(清流)를 굽어보니, 떠오르는 것이 도화(桃花)로다.  
무릉(武陵)이 가깝도다, 저 들이 그곳인가?  
송간(松間) 세로(細路)에 두견화(杜鵑花)를 부여잡고,  
산봉우리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 보니,  
천촌만락(千村萬落)이 곳곳에 펼쳐졌네.  
연하일휘(煙霞日輝)\*는 금수(錦繡)를 펼친 듯,  
옛그제 검은 들이 봄빛도 유여(有餘)하구나.  
㉤공명(功名)도 날 꺼리고, 부귀(富貴)도 날 꺼리니,  
청풍명월(淸風明月) 외(外)에 어떤 벗이 있을고?  
㉥단표누항(簞瓢陋巷)\*에 헛된 생각 아니 하네.  
아모타, 백년행락(百年行樂)이 이만한들 어떠하리.  
- 정극인, 「상춘곡(賞春曲)」-

\* 미음완보(微吟緩步) : 작은 소리로 읊으며 천천히 거닐음.  
\* 연하일휘(煙霞日輝) :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살  
\* 단표누항(簞瓢陋巷) : 한 소쿠리의 밥과 한 표주박의 물

-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이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나타내고 있다.
  - 자연을 매개로 삶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자연 풍광(風光)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과거의 삶에 대한 회한의 정서를 표출하고 있다.
  - 고달픈 현실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고 있다.
- (가)와 (다)의 시상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가)와 (다) 모두 계절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 (가)와 (다) 모두 화자의 시선이 내면에서 외부로 이동하고 있다.
  - (가)는 (다)와 달리 공간의 이동에 따라 정서가 변하고 있다.
  - (다)는 (가)와 달리 화자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
  - (가)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묘사하고 있다.

3. (가)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다.
- ③ 냉소적인 어조로 시적 대상과의 거리감을 나타내고 있다.
- ④ 화자가 의인화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 ⑤ 청각적 심상을 중심으로 시적 상황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할 때, ㉠의 함축적 의미와 가장 유사한 것은?

<보 기>

'검다'는 대개 '어둠, 죽음, 허무' 등을 상징한다. 그러나 (나)에서는 강한 생명력을 품고 있다는 의미로 쓰이고 있다.

- ① 가슴 답답한 보랏빛 하늘 / 어둠이 몰아드는 검은 구름 너머로 / 비의 줄을 타고 나리는 / 꽃방울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다
- ② 먼 길 떠나시던 / 아버님 발자욱이 보인다 // 어두운 밤 홀로 흰 두루막자락 날리시며 / 검은 산(山) 넘어 넘어 / 먼 길 가시던 날
- ③ 쫓기듯 도망치듯 살아온 이에게만 / 삶은 때로 애닦기도 하리 / 긴 능선 검은 하늘에 박힌 별 보며 / 길 잘못 든 나그네되어 떠나려네
- ④ 수그러진다 수그러진다 / 악몽(惡夢)이 나다니는 머리 / 머리 속 빈 들판에 불을 피우고 / 여러 번 막막히 었드렸던 오후 / 검은 연기 땅 위에 눕듯이
- ⑤ 더 큰 침묵을 향하여 / 걸어가 보아라 / 지리산 중턱에는 아직 눈과 바람이 남아 있지만 / 강 건너 복숭아밭의 검은 줄기들은 / 꿈의 문자(文字)들처럼 싱싱하다

5.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분주한 농촌의 일상을 묘사하고 있다.
- ② ㉡ : 풍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 ③ ㉢ : 자연에 동화되고 있는 화자의 정서가 담겨 있다.
- ④ ㉣ : 세속적 가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 있다.
- ⑤ ㉤ : 청빈한 생활을 지향하는 태도가 내포되어 있다.

6. (가)~(다)의 시적 공간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언 땅' : '초록의 보리'와 '겨울 나무'가 스스로를 단련하는 곳이다.
- ② (나)의 '빨밭' : '퍼덕거리'는 생명체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는 공간이다.
- ③ (나)의 '포구' : '무위(無爲)한 해조음'이 밀려와 삶의 허무감을 느끼게 하는 곳이다.
- ④ (다)의 '무릉(武陵)' : '도화(桃花)'를 통해 화자가 연상한 공간이다.
- ⑤ (다)의 '들'과 '산' : '봄빛도 유여(有餘)하구나'에서처럼, 봄기운이 충만한 곳이다.

(7~1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시 중요도 ★★★ - 또 다른 고향 (08년 고3 4월)

(가)  
 고향에 돌아온 날 밤에  
 내 백골(白骨)이 따라와 한 방에 누웠다.  
  
 어둔 방은 우주로 통하고  
 하늘에선가 소리처럼 바람이 불어온다.  
  
 어둠 속에서 곱게 풍화작용하는  
 백골을 들여다보며  
 눈물짓는 것이 내가 우는 것이냐  
 백골이 우는 것이냐  
 아름다운 혼(魂)이 우는 것이냐  
  
 지조 높은 개는  
 밤을 새워 어둠을 짓는다.  
  
 어둠을 짓는 개는  
 나를 쫓는 것일 게다.  
  
 가자 가자  
 쫓기우는 사람처럼 가자  
 백골 몰래  
 아름다운 또 다른 고향에 가자.  
 - 윤동주, 「또 다른 고향」 -  
  
 (나)  
 감나무에 감꽃이 지고 나더니  
 아프게도 그 자리에 열매가 맺네  
 열매는 한창 쑥쑥 자라고  
 그것이 처음에는 눈이 부신  
 반짝이는 광택 속  
 선연한 푸른 빛에서  
 조금씩 변하더니 어느새  
 붉은 홍시로까지 오게 되었더니라.  
  
 가만히 보면  
 한자리에 매달린 채  
 자기 모습만을  
 불과 일 년이지만 하늘 속에  
 열심히 비추는 것을 보고, 글썽,  
 말 못하는 식물이 저런데  
 똑똑한 체 잘도 떠들면서  
 도대체 우리는 어디다가  
 자기 모습을 남기는가 생각해 보니  
 허무라는 심연밖에 없더니라.  
 아, 가을!  
 - 박재삼, 「홍시(紅柿)를 보며」 -  
  
 (다)

나는 일손을 멈추고 잠시 무엇을 생각하게 된다  
 - 살아있는 보람이란 이것뿐이라고 -  
 하루살이의 광무(狂舞)여  
  
 하루살이는 지금 나의 일을 방해한다  
 -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생각한다 -  
 하루살이의 유희(遊戱)여  
  
 너의 모습과 너의 몸짓은  
 어찌면 이렇게 자연스러우냐  
 소리 없이 기고 소리 없이 날으다가  
 되돌아오고 되돌아가는 무수한 하루살이  
 - 그러나 나의 머리 위의 천장에서는 너의 소리가 들린다 -  
 하루살이의 반복(反覆)\*이여  
  
 불 옆으로 모여드는 하루살이여  
 벽을 사랑하는 하루살이여  
 감정을 잊어버린 시인에게로  
 모여드는 모여드는 하루살이  
 - 나의 시각(視覺)을 쉬이게 하라 -  
 하루살이의 황홀(恍惚)이여  
 - 김수영, 「하루살이」 -  
  
 \* 반복 : 본래의 상태로 되돌림. 언행 등을 자꾸 고침.

7.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일상의 소중함에 대한 깨달음이 드러나 있다.
  - ② 내면의 갈등을 극복하려는 다짐을 하고 있다.
  - ③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자신의 삶에 대해 성찰하는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⑤ 부정적 사회 현실이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어 있다.
8. 지조 높은 개와 말 못하는 식물의 공통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기를 인식하게 한다.
  - ② 시간의 경과를 나타낸다.
  - ③ 외로운 심정을 심화시킨다.
  - ④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한다.
  - ⑤ 대상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한다.

9.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아프게도'는 성장의 어려움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푸른 빛'과 '붉은 홍시'의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대상의 성숙 과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어느새'는 의도적으로 행을 바꾸지 않은 것으로, 다음 행의 의미에 주목하게 한다.
- ④ '자기 모습'을 '열심히 비추는 것'은 화자의 입장에서는 성실한 삶의 자세를 의미한다.
- ⑤ '아, 가을!'에는 탈속적 세계를 동경하는 화자의 정서가 드러나 있다.

10. <보기>는 (다)를 감상하면서 생긴 의문점과 그에 대한 토의 내용이다. ㉠~㉣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의문점	토의 내용
하루살이의 움직임에 대한 시어를 '광무 → 유희 → 반복 → 황홀'로 달리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변하는 것을 시어의 변화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 .... ㉠
2연에서 '나는 확실히 하루살이에게 졌다'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	→ 1연에서 '일손을 멈추고 무엇을 생각'하던 화자가 3연에서 하루살이의 자연스러움에 감탄하게 되는 것으로 보아 자신의 삶이 하루살이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 ㉡
3연에서 '반복(反復)'과는 다른 '반복(反覆)'이라는 한자어를 쓴 이유는 무엇일까?	→ '같은 일을 되풀이함'의 뜻을 가진 어휘 대신 '본래의 상태로 되돌림, 언행 등을 자주 고침'의 뜻을 가진 시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시적자아의 심정을 드러내려는 것 같아. .... ㉢
4연에서 '감정을 잃어버린 시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 열정을 잃어버리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대한 화자의 연민을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 .... ㉣
이 시의 구성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 같은 형태의 구절이 매 연마다 반복되며, 대상에 관한 중요한 시어로 각 연을 마무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인 것 같아. .... ㉤

- ① ㉠    ② ㉡    ③ ㉢    ④ ㉣    ⑤ ㉤

(11~1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시 중요도 ★★- 생명의 서·일장 (10년 고2 9월)

(가)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절제(節制)와 균형(均衡)의 중심에서  
 빛나간 힘,  
 부서진 원은 모를 세우고  
 이성(理性)의 차가운  
 눈을 뜨게 한다.  
 맹목(盲目)의 사랑을 노리는  
 사금파리여,  
 지금 **나**는 맨발이다.  
 베어지기를 기다리는  
 살이다.  
 상처 깊숙이서 성숙하는 혼(魂)  
 깨진 그릇은  
 칼날이 된다.  
 무엇이나 깨진 것은  
 칼이 된다.

- 오세영, 「그릇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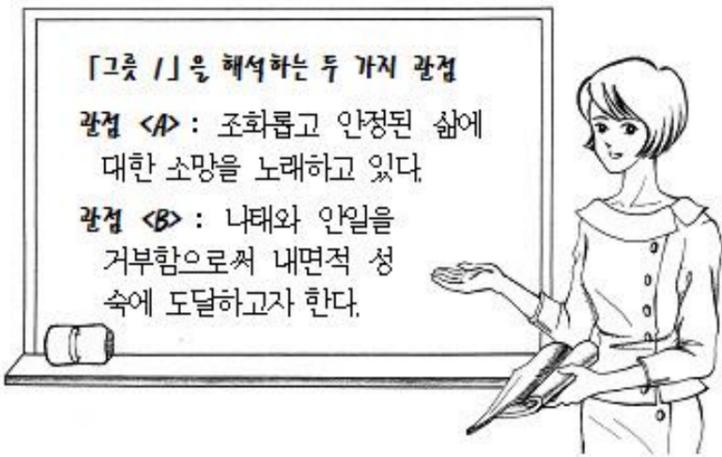
(나)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懷疑)를 구(救)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愛憎)을 다 짐지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길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沙漠)으로 나는 가자.  
 거기서 한 번 뜬 백일(白日)이 불사신같이 작열하고  
 일체가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永劫)의 허적(虛寂)에  
 오직 알라의 신(神)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熱沙)의 끝.  
 그 열렬한 고독(孤獨) 가운데  
 옷자락을 나부끼고 호을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對面)하게 될지니  
 하여 '나'란, 나의 생명이란  
 그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차라리 나는 어느 사구(砂丘)에 회한 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 유치환, 「생명의 서(書)」-

(다) 강호(江湖) 한 꿈을 꾸언 지도 오래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야 어지버 이져떠다.  
 첨피기옥(瞻彼淇澳)혼대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대 하나 빌려사라.  
 노화(蘆花) 깎은 곳에 ㉠명월청풍(明月淸風) 벗이 되야  
 ㉡넘재 업산 풍월강산(風月江山)애 절로절로 늘그리라.  
 무심(無心)한 백구(白鷗)야 오라 하며 말라 하랴.  
 ㉢다토리 업슬산 다문 인가 너기로다.

무상(無狀)한 이 몸애 무슨 지취(志趣) 이스리마난  
 ㉔두세 이렇 밧논를 다 무겨 더져 두고  
 이시면 죽(粥)이오 업시면 굴물망정  
 남의 집 남의 거슨 전혀 부러 말렸노라.  
 내 빈천(貧賤) 슬히 너겨 손을 헤다 물러가며  
 남의 부귀(富貴) 불리 너겨 손을 치다 나아 오랴.  
 인간(人間) 어내 일이 명(命) 밧기 삼겨시리.  
 빈이무원(貧而無怨)을 어렵다 하건마난  
 내 생애(生涯) 이러호대 설운 뜻은 업노왜라.  
 단사표음(簞食瓢飮)을 이도 족(足)히 너기로라.  
 평생(平生) 한 뜻이 ㉕온포(溫飽)애난 업노왜라.  
 태평천하(太平天下)애 ㉖충효(忠孝)를 일을 삼아  
 화형제(和兄弟) 신봉우(信朋友) 외다하 리 뉘 이시리.  
 그 밧기 남은 일이야 삼긴 대로 살렸노라.  
 -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11.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대상의 의미를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② 화자의 생각을 단정적인 어조로 드러내고 있다.  
 ③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하여 그리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⑤ 대립적 시각을 바탕으로 현실적 상황 인식을 노래하고 있다.
12. 다음을 참고하여 (가)의 시어를 이해했을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시어	관점	해석
칼날	<A>	삶의 시련이나 위협에 대항하려는 자세 ...①
	<B>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하는 힘
절제와 균형	<A>	평화롭고 안락한 긍정적인 세계 ...③
	<B>	편안한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모습 ...③
끼진 그릇	<A>	안정적인 조화가 무너진 세계 ...④
	<B>	안일한 현실이 끼뜨려진 상태 ...⑤

- ①      ②      ③      ④      ⑤

13.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의인화를 통해 사물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② 의문형 어미로 화자의 고조된 정서를 보여주고 있다.  
 ③ 공감각적 표현으로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있다.  
 ④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대상과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⑤ 한자어와 관념어를 사용해 생경한 느낌을 드러내고 있다.

14. (가)와 (나)의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의 '나'는 사회적, 역사적 삶의 주체이다.  
 ② (나)의 '나'는 근원적 자아를 의미하는 것으로 생명의 참모습을 드러낸다.  
 ③ (가)의 '나'는 (나)의 '나'와 달리 현실의 제약을 극복하려는 의지가 강하다.  
 ④ (나)의 '나'는 (가)의 '나'와 달리 허무 의식과 달관의 경지를 보여준다.  
 ⑤ (가)와 (나)의 '나'는 모두 자연물을 통해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닫고 있다.

15.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㉑~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누항사」는 임진왜란이 끝난 뒤 박인로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서 생활하던 중에, 한음 이덕형(李德馨)이 찾아와 그에게 두메 생활의 어려운 형편을 묻자 이에 대한 답으로 지은 가사이다. 「누항사」는 궁핍하고 누추한 현실에서 오는 고뇌와 괴로움을 드러내면서 이러한 현실에 순응하는 운명론적 태도로 체념적 심회를 읊기도 하지만, 자연을 벗 삼아 살겠다는 의지와 현실적 어려움 속에서도 유학자로서 실천해야 할 가치관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일상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의 생동감을 획득하는 데 탁월함을 보이고 현실 생활을 사실적으로 묘사하여 조선시대의 전기 가사와 다른 면모를 보이고 있다.

- ① ㉑에는 궁핍한 생활로 인한 작가의 고뇌가 드러나 있다.  
 ② ㉒에는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다는 작가의 소망이 나타난다.  
 ③ ㉓에는 현실에 순응하고자 하는 작가의 운명론적 태도가 담겨있다.  
 ④ ㉔에서 생활과 밀접한 표현을 통해 화자가 처한 현실을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⑤ ㉕에서 작가의 유학자로서의 면모를 엿볼 수 있다.

16.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삶의 본질에 대한 의문을 풀지 못해 괴로워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 ② ㉡ : 극한적 상황에서 치열한 성찰을 시도하는 공간이다.
- ③ ㉢ : 죽음의 표상으로 본질적 자아를 찾으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 ④ ㉣ : 자연은 소유(所有)의 대상이 아니라는 작가의 자연관을 보여준다.
- ⑤ ㉣ : 화자가 지향하는 안빈낙도(安貧樂道)의 태도를 나타낸다.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소설 중요도 ★★★ - 고향 (14년 고2 3월)

[앞부분 줄거리] ‘나’는 대구에서 서울로 가는 기차 안에서 조선, 중국, 일본 3국의 옷을 섞어 입은 듯한 기이한 옷차림의 ‘그’를 보며 거부감과 호기심을 동시에 느낀다. ‘그’는 ‘나’에게 일자리를 알아보려 무작정 서울로 가고 있는 중이라며 말을 건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 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 [A] 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게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려면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종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처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거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랴.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 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약으로 약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는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모친꺼정 돌아갔구마.” “돌아가실 때 흰 죽 한 모금 못 자셨구마.”

하고 이야기하던 이는 문득 말을 뚝 끊는다. 그의 눈이 번들번들함은 눈물이 쏟아졌음이라. 나는 무엇이라고 위로할 말을 몰랐다. 한동안 머뭇머뭇이 있다가 나는 차를 탈 때에 친구들이 사 준 정종 병마개를 빼었다. 찻잔에 부어서 그도 마시고 나도 마셨다. 악착한 운명이 던져 준 깊은 슬픔을 술로 녹이려는 듯이 연거푸 다섯 잔을 마신 그는 다시 말을 계속하였다. 그 후 그는 부모 잃은 땅에 오래 머물기 싫었다. 신의주로, 안동현으로 품을 팔다가 일본으로 또 벌이를 찾아

가게 되었다. 구주 탄광에 있어도 보고, 대판 철공장에도 몸을 담아 보았다. 별이는 조금 나았으나 외롭고 젊은 몸은 자연히 방탕해졌다. 돈을 모으려야 모을 수 없고 이따금 율화만 치받치기 때문에 한곳에 주점을 하고 있을 수 없었다. 화도 나고 고국 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뭐시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펍 변했겠지요.”

“변하고 뭐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농이 되었던 말씀이요?”

“흥,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담만 즐비하게 남았즈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지요,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지요.”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뚝뚝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혈어 젖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지요?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지요,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켜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뚝뚝히 본 듯싶었다.

-현진건, 「고향」-

17. 윗글의 ‘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살기 좋다는 말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서간도로 떠났다.
- ② 오랜만에 고향을 찾았지만, 낯선 사람들만 있어 실망한다.
- ③ 부모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한다.
- ④ 정착하겠다는 의지를 품고 서간도를 떠나 일본으로 건너갔다.
- ⑤ 일본을 떠나 귀국한 것은 고향에 가면 일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18. [A]의 서사적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의 흐름에서 벗어난 장면을 통해 위기감을 해소한다.
- ② 현재의 상황을 바탕으로 지나간 사건을 추리하여 재구성한다.
- ③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각도에서 살펴봄으로써 독자들의 판단을 유도한다.
- ④ 상반된 역사적 해석을 대비하며 역사적 사건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게 한다.
- ⑤ 사건이 벌어지게 된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서사 구조에 필연성을 강화한다.

1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고향」이 1920년대 식민지 조선의 피폐함을 사실적으로 잘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작가 현진건이 <동아일보> 기자였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 국내 농촌의 피폐함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의 비극적인 삶에 대해 현진건은 기사를 통해 누구보다 자주 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환경 속에서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폐단을 고발하고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은 한국 민중이라는 사실을 집약적으로 드러내는 「고향」이 창작되었다. 민족 전체가 암울하게 살아가던 때, 「고향」은 우리 민중들이 품고 있는 반일 감정과 민족에 대한 연민의 감정을 고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 ① 고향을 둘러 본 ‘그’가 괴로워하는 것은 일제의 수탈을 피해 고향을 버렸던 사람들이 지닌 죄책감을 반영하고 있군.
- ② 농민에 대한 동양척식회사와 중간 소작인의 횡포는 일본의 폭력적 식민 지배가 낳은 폐단을 집약적으로 보여 주는군.
- ③ ‘그’가 겪은 서간도에서의 삶과 일본 탄광에서의 노동 등은 작가가 접한 해외 동포들의 비극상에 바탕을 둔 것이겠군.
- ④ 온갖 고난을 겪다가 고향까지 잃어버린 ‘그’의 모습을 통해 식민 지배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이 한국 민중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군.
- ⑤ ‘그’의 모습을 ‘조선의 얼굴’이라고 표현한 것은 ‘그’의 고달픈 삶을 통해 당시 암울했던 우리 민족 전체의 삶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겠군.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현대소설 중요도 ★★ 고향 - (18년 수능특강)

일자리에 대하여 아무 지식이 없는 나로서는 이 외에 더 좋은 대답을 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 대신 나는 은근하게 물었다.

“어데서 오시는 길입니까?”

㉠“홍, 고향에서 오누마.”

하고 그는 휘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그의 신세타령의 실마리는 풀려나왔다. 그의 고향은 대구에서 멀지 않은 K군 H란 외딴 동리였다. 한 백 호 남짓한 그곳 주민은 전부가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는데 역둔토로 말하면 사삿집 땅을 부치는 것보다 떨어지는 것이 후하였다. 그러므로 넉넉지는 못할망정 평화로운 농촌으로 남부럽지 않게 지낼 수 있었다. 그러나 세상이 뒤바뀌자 그 땅은 전부 동양척식회사의 소유에 들어가고 말았다. 직접으로 회사에 소작료를 바치거나 되었으면 그래도 나으련만 소위 중간 소작인이란 것이 생겨나서 저는 손에 흙 한 번 만져 보지도 않고 동척엔 소작인 노릇을 하며 실작인에게는 지주 행세를 하게 되었다. 동척에 소작료를 물고 나서 또 중간 소작인에게 굶히고 보니 실작인의 손에는 소출의 삼 할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 후로 ‘죽겠다’, ‘못 살겠다’ 하는 소리는 중이 염불하듯 그들의 입길에서 오르내리게 되었다. 남부여대하고 타차로 유리하는 사람만 늘고 동리는 점점 쇠진해 갔다.

[A] 지금으로부터 구 년 전 그가 열일곱 살 되던 해 봄에 (그의 나이는 실상 스물여섯이었다. 가난과 고생이 얼마나 사람을 늙히는가.) 그의 집안은 살기 좋다는 바람에 서간도로 이사를 갔었다. 쫓겨 가는 운명이어든 어디를 간들 신신하라. 그곳의 비옥한 전야도 그들을 위하여 열려질 리 없었다. 조금 좋은 땅은 먼저 간 이가 모조리 차지를 하였고 황무지는 비록 많다 하나 그곳 당도하던 날부터 아침거리 저녁거리 걱정이라, 무슨 행세로 적어도 일 년이란 장구한 세월을 먹고 입어가며 거친 땅을 풀 수가 있으랴. 남의 밑천을 얻어서 농사를 짓고 보니 가을이 되어 얻는 것은 빈주먹뿐이었다. 이태 동안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버티어 갈 제 그의 아버지는 우연히 병을 얻어 타국의 외로운 혼이 되고 말았다. 열아홉 살 밖에 안 된 그가 홀어머니를 모시고 악으로 악으로 모진 목숨을 이어 가던 중, 사 년이 못 되어 영양 부족한 몸이 심한 노동에 지친 탓으로 그의 어머니 또한 죽고 말았다.

(중략)

화도 나고 고국산천이 그리기도 하여서 훌쩍 뛰어나왔다가 오래간만에 고향을 둘러보고 별이를 구할 겸 구경도 할 겸 서울로 올라가는 길이라 한다.

“고향에 가시니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탄식하였다.

“반가워하는 사람이 다 뭇기오? 고향이 통 없어졌더마.”

㉡“그렇겠지요. 구 년 동안이면 꺾 변했겠지요.”

“변하고 무어고 간에 아무것도 없더마. 집도 없고, 사람

도 없고, 개 한 마리도 얼씬을 앓더마.”

“그러면 아주 폐동이 되었던 말씀이오?”

“홍, 그렇구마. 무너지다가 다만 즐비하게 남았더마. 우리 살던 집도 터야 안 남았겠는기오? 암만 찾아도 못 찾겠더마. ㉢사람 살던 동리가 그렇게 된 것을 혹 구경했는기오?”

하고 그의 짜는 듯한 목은 높아졌다.

“씩어 넘어진 서까래, 똥똥 구르는 주추는! 꼭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짓혀 놓은 것 같더마. 세상에 이런 일도 있는기오? 백여 호 살던 동리가 십 년이 못 되어 통 없어지는 수도 있는기오? 후!”

하고 그는 한숨을 쉬며 그때의 광경을 눈앞에 그리는 듯이 멀거니 먼 산을 보다가 내가 따라 준 술을 꿀꺽 들이치고,

“참! 가슴이 터지더마, 가슴이 터져.”

하자마자 굵직한 눈물 두어 방울이 뚝뚝 떨어진다.

나는 그 눈물 가운데 음산하고 비참한 조선의 얼굴을 뚝뚝히 본 듯싶었다.

이윽고 나는 이런 말을 물었다.

“그래, 이번 길에 고향 사람은 하나도 못 만났습니까?”

“하나 만났구마, 단지 하나.”

“친척 되시는 분이던가요?”

“아니구마, 한 이웃에 살던 사람이구마.”

하고 그의 얼굴은 더욱 침울해진다.

“여간 반갑지 않으셨겠지요?”

“반갑다마다, 죽은 사람을 만난 것 같더마. 더구나 그 사람은 나와 까닭도 좀 있던 사람인데…….”

㉣“까닭이라니?”

“나와 혼인 말이 있던 여자구마.”

“하—”

나는 놀란 듯이 벌린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

하고 그는 또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그 여자는 자기보다 나이 두 살 위였는데 한 이웃에 사는 탓으로 같이 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자라났었다. 그가 열네댓 살 적부터 그들 부모 사이에 혼인 말이 있었고 그도 어린 마음에 매우 탐탁하게 생각하였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열일곱 살 된 겨울에 별안간 간 곳을 모르게 되었다. 알고 보니 그 아버지는 자가 이십 원을 받고 대구 유곽에 팔아먹은 것이었다. 그 소문이 퍼지자 그 처녀 가족은 그 동리에서 못 살고 멀리 이사를 갔는데 그 후로는 물론 피차에 한 번 만나 보지도 못하였다. 이번이야 빈터만 남은 고향을 구경하고 돌아오는 길에 읍내에서 그 아내 될 뻔한 덕과 마주치게 되었다. 처녀는 어떤 일본 사람 집에서 아이를 보고 있었다. 쫄녀는 이십 원 몸값을 십 년을 두고 갚았건만 그래도 주인에게 빛이 육십 원이나 남았었는데 몸에 몹쓸 병이 들고 나이 늙어져서 산송장이 되니까 주인 되는 자가 특별히 빛을 탕감해 주고 작년 가을에야 놓아준 것이었다. 쫄녀도 자기와 같이 십 년 동안이나 그리던 고향에 찾아오니까 거기에는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쓸쓸한 돌무더기만 눈물

을 자아낼 뿐이었다. 하루해를 울어 보내고 읍내로 들어와서 돌아다니다가 십 년 동안에 한 마디 두 마디 배워 두었던 일본 말 덕택으로 그 일본 집에 있게 된 것이었다.

“암만 사람이 변하기로 어찌 그렇게도 변하는지요? 그 술 땀던 머리가 훌렁 다 벗어졌더마. 눈은 폭 들어가고 그 이들이들하던 얼굴빛도 마치 유산을 끼얹은 듯하더마.”

“서로 붙잡고 많이 우셨겠지요?”

“눈물도 안 나오더마. 일본 우동집에 들어가서 둘이서 정종만 한 열 병 따려 누이고 헤어졌구마.”

하고 가슴을 찌는 듯이 괴로운 한숨을 쉬더니만 그는 지난 슬픔을 새록새록이 자아내어 마음을 새기기에 지치었음이더라.

㉠“이야기를 다 하면 무얼 하는지요?”

하고 쓸쓸하게 입을 다문다. 내 또한 너무도 참혹한 사람 살이를 듣기에 쓴 물이 났다.

“자, 우리 술이나 마저 먹읍시다.”

하고 우리는 서로 주거나 받거나 한 되 병을 다 말리고 말았다. 그는 취흥에 겨워서 우리가 어릴 때 멋모르고 부르던 노래를 읊조리었다.

벗섬이나 나는 전토는  
 신작로가 되고요—  
 말마디나 하는 친구는  
 감옥소로 가고요—  
 담뱃대나 떠는 노인은  
 공동묘지 가고요—  
 인물이나 좋은 계집은  
 유곽으로 가고요—

— 현진건, 「고향(故郷)」

20.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결 의식을 부각하여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상상적 공간을 묘사하여 진행되는 사건의 허구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③ 사건의 요약적 진술을 통하여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 ④ 갈등 상황을 세부적으로 서술하여 부정적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인물의 의식이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 사건의 반전을 암시하고 있다.

21. ‘그’와 ‘그 처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그 처녀’는 떠났던 고향으로 되돌아오면서 가족과 재회하여 삶의 희망을 되찾고 있군.
- ② ‘그’는 가족들을 등지고 서간도로 떠난 후 자신의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군.
- ③ ‘그’와 ‘그 처녀’는 서로의 재회를 통해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군.
- ④ ‘그’가 열일곱 살에 겪은 사건은 ‘그 처녀’가 열일곱 살에 겪은 사건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하였군.
- ⑤ ‘그’가 겪은 서간도 이주와 ‘그 처녀’가 팔려 간 사건은 그들의 고향이 더 이상 삶의 터전이 될 수 없었던 상황을 보여 주는군.

2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오랜만에 다녀온 고향의 모습에서 비롯된 ‘그’의 답답한 심정이 반영된 것이다.
- ② ㉡: ‘나’가 맞장구를 치는 말로서 ‘그’에 대해 공감을 표현한 것이다.
- ③ ㉢: 예전에 살던 ‘동리’의 변화에 대해 ‘그’의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다.
- ④ ㉣: ‘그’와 ‘그 사람’의 관계에 대해 ‘나’의 궁금함을 드러내는 말이다.
- ⑤ ㉤: 불편한 이야기를 건네는 ‘나’에 대해 ‘그’가 거부감을 드러내는 말이다.

23. 노래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토가 신작로로 변했다는 ‘노래’의 내용은, 신세타령 속에서 ‘역둔토를 파먹고’ 살았던 시절로 표현되는 인물들의 과거가 현재에 비해 더 평화로운 삶이었다는 것과 상관이 있겠군.
- ② 말마디나 하는 친구가 감옥소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못 살겠다’는 말로 인해 고향 사람들과 갈등을 겪은 친구의 부자유한 처지를 떠올리게 하는군.
- ③ 담뱃대나 떠는 노인이 공동묘지로 갔다는 ‘노래’의 내용은, 무능력한 구세대 때문에 피폐해진 고향을 ‘무덤을 파서 해골을 헐어 젖혀 놓은’ 듯한 모습으로 그려 낸 것과 상관이 있겠군.
- ④ 유곽으로 가는 계집을 떠올리는 ‘노래’의 내용은, ‘그 신세도 내 신세만이나 하구마.’라고 탄식하는 인물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상황을 떠올리게 하는군.
- ⑤ 상실감을 극복하는 모습을 다룬 ‘노래’의 전체 내용은, 노래를 부르는 인물이 과거로 회귀하여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대결 의지를 드러낸 것이군.